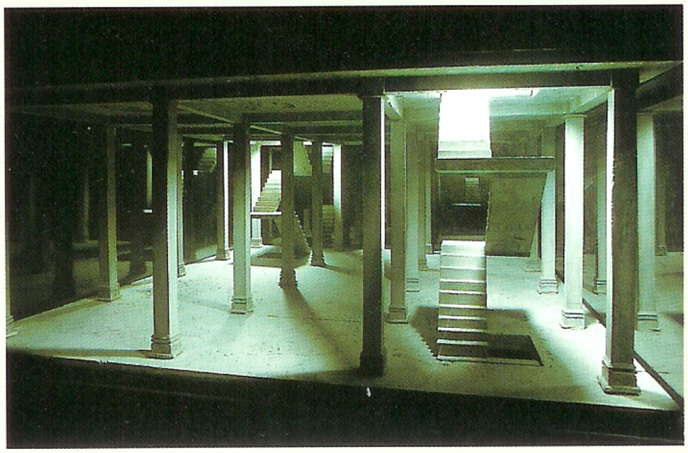
# 김상균 풍경2003

7.23 - 7.29 공평아트센터 (02-733-9512/4)

김상균에게는 또 하나의 재료가 있다. 그것은 빛이다. 그는 유리로 된 건축물의 모형에 빛을 비추는데, 그것은 매우 극적인 효과를 낸다. 유리와 빛의 관계를 아주 미묘해서, 만약 빛이란 특성이 없다면 유리는 유리 구실을 못했을 것이다. 왜냐면 유리의 생존이유는 빛을 투과시킨다는 점에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게 아니라면 유리가 판자나 벽하고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남자는 모두 늑대'라고 말하면서 그 늑대들하고 사는 여자들 같이, 유리와 빛은 서로를 차단하며 서로에게 삼투하고 있다. 따라서 김상균의 재료는 그 차원이 확대되는데, 이제 더 이상 유리라든가 빛이라든가 하는 개별적인 차원의 재료가 아니라, 유리와 빛이 서로 얽혀 있는 바로 그 상태가 재료가 된다. 이쯤 되면 재료의 정의가 혼란스러워지는데, 우리가 흔히 재료라고 말할 때는 작업을 하기 전의 어떤 상태의 물질, 즉 요리를 하기 전의 생선같은 것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찜이 되어 접시 위에 올려놓은 도미를 재료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추가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니, 그것은 재료라는 것이 동심원을 그리면서 여러 층으로 겹쳐 있다는 것이다. 즉 재료에는 원재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공한 2차 재료, 그것을 더 큰 체계에 넣은 3차 재료 등 끊임없는 층위들의 복합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마리 롤랑 바르트의 기호학에서 하나의 기호가 광고체계라는 더 큰 기호의 체계에 들어가면 그 자체로 하나의 기표가 되어 더 큰 기의에 종속되는 것과 같다. 김상균의 경우 유리와 빛을 원재료라고 하면 이 둘이 서로 얽혀서 뭔가 효과를 내고 있는 상태는 파생된 재료다. 예술의 재료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 세계에 가득 찬 원재료의 조야함을 파생된 재료의 세련됨과 의미충만함으로 바꿔놓기 때문이다. 문학 하는 사람들은 일상의 조야함을 산문적(prosaic)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재료들이 후지게 늘어놓아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반면에, 점호 받는 군대내무반처럼 재료들이 팽팽하게 긴장하며 어떻게든 인간을 이겨보려고 날을 세우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의미충만함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료가 꼭 물질적인 것은 아니다. 김상균이 유리와 콘크리트로 건축물의 형태를 만들고 있다고 했는데, 이때 건축이라는 것도 하나의 재료이다. 이 경우 건축이 재료로 이끌려 들어오는 차원은 건축물 그 자체,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철, 콘크리트, 돌 등의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건축의 아이디어, 스타일, 제도, 역사, 담론, 감각 등 건축물을 이루는 모든 표상들의 집합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재료에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 순진한 재료들이 예술의 재료로 격상되었을 때 그것들은 소외를 겪는다. 사실 이는 재료의 잘못이 아닌데, 사람들은 재료에 예술적 사상이 있고 가치가 있고 위대함이 깃들어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런 것들은 재료 속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외가 오는 것이다.

▲ Drawing2 · 80×90×5㎝ · 실크에 금분 채색 · Silkscreen · 2003
▼ 풍경2 (A Landscape-sweet dream) · 122×105×200㎝ · Cement, Glass, Lighting · 2002



-이영준/ 이미지비평, 계원조형예술대 교수